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272명분에 해당하고 지난해 대비 약 50% 증가한 규모로 내년에는 관내 미 취업으로 고민인 청년들은 물론 코로나19로 장

행안부 공모 선정돼 33억원 확보
취·창업지원, 일자리 ‘특수’ 기대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기 체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특수가 기대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시 연간 최대 2,4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과, 청년 창업 기업 대상 시제품 개발 등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1유형에 242명을 지원하며, 청년 알바자 일자리 지원사업, 패션 산업 인력양성지원사업, 식품기업 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등으로 내년 초 참여기업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2유형(창업)은 ‘청년 다리로움 창업지원사업’으로 내년 1분기 내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 다리로움 창업지원사업은 익산시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창업드림카, 외식창업지원등에서 한 발 나아간 형태로, 기술 창업 지원에 주력해 지역 특화 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젊은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

한편 익산시는 청년들의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등 추가 지원코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 편성했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지적재조사사업 앞두고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무주군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고목지구·하유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에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불일치한 등복사황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 국비 예산 2억 3,500여 만원을 투입 2개 사업지구인 고목지구 839필지와 하유지구 371필지 총 1,210필지 67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전체 인원의 2/3 이상, 토지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이에 군은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3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홍보 동영상 시청, 사업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질의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민원봉사과 김경복 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업지구와 대상토지를 배로 늘려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열 기자



남원시 운봉읍 아래봉행복센터 문열어

남원시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아래봉행복센터’가 준공돼 26일 현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79억6,500만원을 투자해 아래봉행복센터 건립, 운봉시장 정비, 서림공원 정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됐다.

대표 시설인 아래봉행복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979㎡ 규모로 1층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북카페와 작은영화관,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과 주민 체력향상을 위한 헬스장이 조성돼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경식 남원시부시장은 이날 개관식을 통해 “문화교육의 허브인 아래봉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운봉이 농촌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의원발의 조례안 후속조치 마련 촉구

장정복 의원, 제정 목적 달성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함 강조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장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다가가고자 제8대 장수군의회 의원생활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에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례



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각종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몇몇 조례는 후속조치의 미시행으로 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 법률 명령과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서 그 시행에 따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행정의 안일함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과 의회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출범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7건의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중이다.

/유기종 기자

무주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확보 했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굴삭기, 승용예취기 등 75종 430대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4,000여 농가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면서 농기계 구입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발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 휴일 근무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해 농업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대행 사업도 운영해 농기계 작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이형열 기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나들이·현장학습 장소로 인기

엑티브 놀이시설로 새롭게... 개장 이후 1만8,500여명 방문

익산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가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을 갖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월 개장한 다이노키즈월드를 중심으로 더불어 슬라이드 등 공통테마공원까지 엑티브한 놀이시설들을 갖춰 가족 나들이객 뿐만 아니라 전복지역 초·중·고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노 키즈월드’는 코로나19 영향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돼 누적인원 18,5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으며 개장 이후 월평균 4,1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영 기자

공중모험시설 ‘스카이 트레일’, 야박등반시설 ‘아트 클라이밍’, 서바이벌게임 ‘레이저태그’, ‘트램폴린 점프’ 등이 설치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놀이 체험시설로서 안정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이곳에는 9월 이후 전주, 군산, 완주, 임실, 남원 등 전북 지역 내 14개 기관·단체가 이용했으며 현재 예약 문의가 쇄도에 단채방문객을 위한 별도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규창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현장 목소리 청취

노인회관 건립사업지,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조성사업지 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례회중인 가운데 26일 서동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지, 노인회관 건립사업지,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조성사업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 공유재산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식물학습원이 조성되면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어양동 노

인회관의 신축 건립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돼 취업난과 경제위기 속에 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운영 기자

무주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무주군이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연말연시 등 사회적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틈타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다.군은 주흥규 산업건설국장을 상황실장, 이상형 산업경제과장이 총괄을 맡고 물가대책 총괄반, 농산물운영반, 축·수산물운영반, 개인서비스요금운영반 등 4개 반을 편성·운영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총괄반은 부서별 점검사항을 총괄하고 농산물운영반은 매점매석과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또 축산물점검반은 계량 위반행위와 섞여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감시하며 개인서비스업 점검반은 요금 과다인상 행위와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물가안정 대책 추진 기간 물가점검 및 지도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흥규 국장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열 기자